곡성 기차당뚝방마켓, 올해 장사 시작

2016년 시작해 올해로 5년차 '전남 대표 플리마켓'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하며 매주 토요일 개장 예정
여유로운 풍경·색다른 상품·문화공연 인기 비결

곡성군과 기차당뚝방마켓조합은 오는 13일부터 매주 토요일 기차마을전통시장 옆 둑방길에서 기차당뚝방마켓을 개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5년차인 곡성 기차당뚝방마켓은 곡성뿐만 아니라 전남의 대표적인 플리마켓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개장횟수가 줄었음에도 셀러 매출액이 전년대비 40%가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여유로운 풍경, 색다른 상품, 흥을 북돋는 로컬 문화 공연이 3박자가 높은 인기의 비결로 꼽힌다.

지난 동절기 동안 뚝방마켓은 또 한 번 새로워졌다. 뚝방정원에는 핑크색 선물모양의 포토존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조성한 모래놀이터와 야외무대, 쉼터 등과 연계해 더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방문객의 재미를 더할 이벤트도 가득하다. 개장일에는 신년 다짐 작성 이벤트인 '노오란 뚝방 꽃이 피었습니다.'와 할인쿠폰을 얻을 수 있는 '뚝방 행복팡팡 룰렛 돌려돌려'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곡성군과 뚝방마켓조합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토대로 뚝방마켓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뚝방마켓' 운영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방문객은 5명 이상 동반입장 금지, 다른 일행 간 2m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발열체크 등을 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셀러 간 거리두기를 위해 참여 셀러를 60팀으로 한정해 개최한다.

운영 관계자는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는 '안전한 뚝방마켓'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양해영 기자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6기 단원 모집

합창 3개 파트 단원 26명 모집 … 9일까지 신청 접수
초등 3학년부터 고등 1학년까지 관내 거주 학생 누구나

나주시는 맑고 고운 목소리로 사랑과 희망,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6기 새 단원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메조소프라노·알토 3개 파트 단원 2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노래(합창)에 관심이 있거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오는 9일까지 시청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trust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원서 마감 후 실기,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해 17일 시청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05년 나주문화원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출발했다.

이후 2016년 민선 6기 문화융성 시책 일환으로 출범한 나주시립예술단으로 재편됐으며 시립국악단, 합창단과 짝을 이뤄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시민의 문화 향유에 앞장서고 있다.

단원 모집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나주시청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문화예술과(061-339-4623),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무장(010-8467-8197)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청아한 목소리로 희망을 전파하는 천사들의 하모니에 참여할 주인공을 찾는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음악으로 어루만지는 비대면 문화공연을 꾸준히 추진해가겠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다시 열린 장성호 수변길 '치유 관광지' 인기

주말 평균 1만 명 방문

지난 2월 중순 재개장한 장성호 수변길이 '치유 관광지'로 인기다. 군에 따르면 최근, 주말 평균 1만 명이 수변길을 찾고 있다.

장성호는 지난 1976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된 인공 호수다. 웅장한 규모를 지녀 '내륙의 바다'로 불린다. 병풍처럼 에워싼 산자락과 드넓은 호수가 어우러진 풍경이 감탄을 자아낸다. 장성군은 2018년, 호수변에 나무데크길과 옐로우출렁다리를 설치해 '관광 핫플레이스'로 재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제2출렁다리인 황금빛출렁다리를 개통하고 호수 우측에 트래킹 코스인 '숲속길'을 만들었다. 또 수변길 방문객에게 입장 시 3000원을 받고 동일 금액의 지역화폐(장성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를 실시해 관광 수요와 지역 상권을 효과적으로 연계했다. 아울러 '수변길마켓'을 확대 운영해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도 일조했다.

지난달 15일, 장성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침에 따라 한동안 폐쇄됐던 장성호 수변길의 문을 다시 열었다. 마스크 착용과 5인 이상 단체이용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많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수변길을 찾은 박모 씨(광주 북구)는 "탁 트인 호수 풍경을 바라보면 답답했던 가슴까지도 시원해진다"면서 "두 개의 출렁다리만 건너고 돌아와도 운동 효과가 좋다"고 전했다.

수변길 출발지점부터 첫 번째 출렁다리까지는 대략 1.2km, 두 번째 출렁다리는 1km 가량 떨어져 있다. 옐로우출렁다리와 황금빛출렁다리를 모두 체험하고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넉넉잡아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려는 관광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더욱 질 좋은 상품과 친절한 서비스를 갖춘 수변길마켓 개장으로, 지역 농업인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담양 창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지난해 사업 시행 결과 심의, 올해 특화사업 안건 등 논의

담양군 창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창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난해 사업의 결과 심의와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 안건(우리동네 세탁방, 우리마을 주치간호사)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창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음식점과 연계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두유 및 밑반찬을 제공하고 저소득 가정에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협의체 공공위원장인 김용진 창평면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협의체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에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었다"며 "올해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소외계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 상춘객 대비 식중독예방 등 위생지도

구례군은 상춘객이 찾아올 것을 대비하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의 위생 지도점검을 3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산수유꽃을 시작으로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 봄꽃들이 줄줄이 피어나고 tvN '윤스테이' 등의 방송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을 대비하여 일반음식점과 카페 등의 식중독 발생과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식중독 예방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3대 요령 다 같이 실천해요!'와 '차릴 때는 먹을 만큼, 먹을 때는 남김없이!' 등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화순 복림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 공모 선정

4년간 20억 여원 투입 예정

화순군은 5일 동면 복림마을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4년 동안 20억여원이 투입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담장·축대 정비 ▲마을안길 확장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이 추진된다.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 케어 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복림마을은 읍·면 소재지와 거리가 멀어 대표적인 생활여건 취약지역으로 꼽혀 왔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참여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됐다"며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한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